

GOMZ Interview

청년 팝업 스토어 참가한 소상공인 인터뷰

청년 팝업 스토어에 참여한 소상공인에게 '청년'에 대해 물었다.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청년의 열정으로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청년 소상공인을 만나본다.



박종민 대표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후회해도 제 뉘이고, 안 해도 제 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직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한 번 도전해보세요.



친환경 용기

친환경 밀짚펄프 용기는 발대 없이도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베스트 음료



중스프레소

소량의 물이나 수증기로 인해 묽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문 즉시 냄비에 우유를 끓여 정성스럽게 제조하는 음료다.



초콜릿 전문점

백석동 골목에 자리한 커다란 초콜릿문을 열고 들어가면 달콤한 향이 가득 퍼진다. 마치 헨젤과 그레텔 동화에 나온 과자 집을 옮겨 놓은 듯하다. 박종민 대표는 올해 2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초콜릿 전문점을 열었다. 처음부터 창업 콘셉트를 초콜릿으로 잡은 것은 아니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가장 좋아하는 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답을 찾은 것이다. 바로 초콜릿이다. 나만의 초콜릿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꽂혀, 아르바이트로 모은 자금을 투자해 전문 쇼콜라티에 과정을 수료했다.

초콜릿이라는 콘셉트가 흔치 않아서일까. 손님들의 방문이 하나둘씩 이어지고 입소문도 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초콜릿에 견과류를 섞어 만든 초콜릿이 시그니처 메뉴다. 앞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초콜릿 메뉴를 개발하고 싶다는 박 대표. 그의 발걸음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달콤한 격려와 위로가 되길 기대해본다.



바야흐로 반려견 간식 전성시대다. 그런데 실온보관을 위한 방부제나 기타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제품도 많다. 이런 가공 제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반려견이 많아지다 보니, 수제간식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도경 대표는 자신의 반려견이 아플 때 종종 밥과 간식을 만들어 주곤 했다. 강아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면 더없이 행복했다고. 그래서 이 대표는 강아지들의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책임지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창업 3개월을 맞이한 신생기업으로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지만 제품을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항상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공수하고, 작업공간은 세척과 살균 소독에 신경쓰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려 노력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플리마켓 참여 이후 스마트 스토어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차례 문의가 쇄도한다며 기뻐했다. "앞으로 건강과 맛, 재미를 모두 갖춘 펫푸드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는 그녀의 도전을 응원한다.

반려견 간식 전문점



이도경 대표

브랜드의 차별화와 꾸준한 자기개발을 잊지 마세요.
언제든 도전할 마음과 지지치 않을 체력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인기메뉴



수제간식

신선한 재료로 만든 수제간식을 방장 보관한다. 패키징도 직접 디자인한 100% 수제품이다.

특별한 센스



강아지 케이크

이도경 대표는 최근 일대일로 케이크를 만드는 원데이클래스를 오픈했다.

